

디지털무역 지원기반 강화로 수출저변 확대

-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확산(3개→'23년 9개→'27년 30개), 전자무역플랫폼(유티레이드허브2.0)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 '27년까지 디지털무역 현장 전문인력 1만명 양성, 국가 간 유통 전자 무역문서(전자송장, 전자원산지 증명서 등) 확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디지털무역 촉진 인프라 지원 강화를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해외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6.14.(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무역기반시설 통합관계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무역 서비스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디지털무역 기업 및 지원기관과 디지털무역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디지털통상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가입하는 실질타결을 계기로 우리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해외진출 확대에 연결시키기 위한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는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확대(현재 3개→'23년 9개→ '27년 30개),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기능 보강(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수출상품의 미국 내 신속통관 등) 등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코트라가 보유한 무역 4대 플랫폼(무역투자24, 해외시장정보드림, 바이코리아, 트라이빅)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에 맞는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해외바이어 발굴과 교류, 무역상담 등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18개국이 가입한 국제 전자송장 유통망 페폴(PEPPOL)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국가를 올해 말까지 인도, 베트남으로(현행: 중국, 인도네시아) 확대하고, 글로벌 디지털무역 확산에 대응하여 중소·중견 기업 전문인력 및 청년 디지털무역인 양성과 디지털무역상사 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27년까지 디지털무역 전문인력 1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DEPA 연내 발효를 목표로 가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IPEF 디지털경제협상, EU와의 디지털 규범 현대화 논의 등 디지털 통상네트워킹을 확대하고, DEPA 가입을 계기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상용 (043-203-4020)
	무역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도안 (044-203-4022)

1. 개최 목적

-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디지털기반 수출 지원체계 개선 방안 모색
 - ❶ 전자상거래 수출 저변 확대, ❷ 정보제공, 바이어 매칭, 전자 무역문서 유통 등 지원 플랫폼 고도화, ❸ 국가 간 전자 무역문서 유통 확대 등

2.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3.6.14(수) 15:45~17:30 / KTNET 통합관계센터, 무역센터 51층
- 참석범위: 본부장(주재), 수출기업, 디지털 무역 지원기관 등 14명
 - (전자상거래 수출) 전자상거래 활용 유망품목 셀러 및 플랫폼 기업
 - (디지털비즈니스) 디지털 기술 활용 콘텐츠·데이터 수출기업 등
 - (지원기관) KTNET, KOTRA

□ 세부논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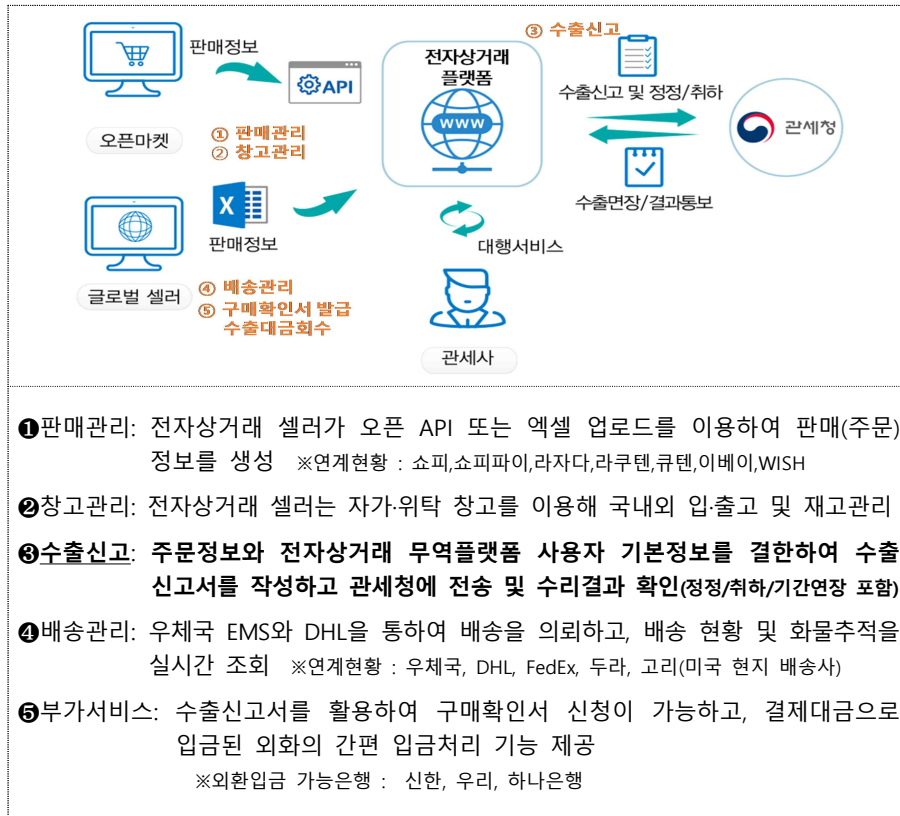
구 분	주요내용	비고
현장방문	▶ 전자무역기반시설(전자문서 중계현황, 보안 등)	본부장
지원방안 및 사례 발표	▶ 모두 발언: 디지털무역 촉진 방안	본부장
	▶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플랫폼	KTNET
	▶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수출지원방안	KOTRA
	▶ 디지털 비즈니스 수출사례	기업
토론	▶ 수출기업별 애로 건의, 정부 및 유관기관 답변	참석자 전체

참고 2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플랫폼 주요 지원기능

- (개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셀러가 해외에 판매한 물품에 대해 판매(상품/주문)관리, 창고(재고)관리, 수출통관 관리, 배송관리, 구매확인 및 결제관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무역 소 과정 서비스 지원하는 플랫폼

- (기능) 수출(자가)통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 제공



- (이용현황) '22년 KTNET 전자상거래 무역플랫폼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는 약220만건(약 34.7%)

※가입업체 현황 : 4,457개('23.4)

참고 3

KOTRA 4대 플랫폼 및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 KOTRA 4대 플랫폼

- ① 무역투자24 :** 고객이 한곳에서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단절없는 통합·연계 서비스 제공
* 무역투자 부문의 '정부24'와 같은 서비스 구축, 고객의 정보검색·상담·사업신청을 일원화
- ② 해외경제정보드림 :** 정부·민간이 보유한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활용해 한눈에 맞춤형으로 제공
* 총 68개 기관·기업 등 범정부 해외시장 정보 통합 제공
- ③ TriBIG :** 국내·외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분석해 유망·관심 시장의 잠재파트너 정보를 빠르게 매칭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 기업정보(580만개) 기반, 정확도 높은 추천정보를 3분내 제공
- ④ buyKOREA :** 고객의 수출거래 전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B2B 플랫폼으로 개편해 고객의 비대면 수요에 대응
* 무역상담부터 주문·결제·배송까지 수출 전주기를 지원

-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 (개요) 국민 누구나 디지털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잠재 바이어 발굴, 디지털 무역 상담, 성과관리까지 디지털 무역 전 주기를 지원하는 상시 비즈니스 인프라

로 고	의 미
	기업이 KOTRA의 4대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을 통해 ①고객 경험(CX : Customer eXperience)을 ②디지털로 전환(DX : digital transf(X)ormation)하고 ③수출(eXport)로 연결하며 ④이를 지속적으로 확장(eXpansion)하도록 지원

- (기능) 4개 특화공간 구성을 통한 원스톱 디지털 무역 지원

* ①스튜디오존(상품 촬영), ②디지털마케팅 공간(교육·실습, SNS마케팅, TriBIG활용)
③디지털무역상담실(셀러·바이어) ④디지털카페(공유오피스, 네트워킹)